

한우 자조금 07

2010년 7월호 견우직녀달 견우직녀가 만나는 아름다운 달

※ 견우직녀달은 7월의 순우리말입니다.

특집

하반기 한우유통 시장 '적신평' 04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한우사랑 유람선 여행 p.06

천하무적 한우! 이효리와 만나다 p.07



발구

발구 ▶▶ 소에 메워 물건을 실어 나르는 큰 썰매로서 주로 강원 산간지방 등 길이 험한 지역에서 많이 사용한다.

하반기 소값안정 위해 추석이전 홍보행사 집중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자조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사업보고



올 상반기 한우자조금 운용결과 조성은 꾸준했으나
구제역으로 인해 일정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사용설적이
저조해 소비홍보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5일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에서 개최된 한우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 조성실적이 53.9%,
입금률 91.2%로 꾸준했으나 운용실적은 14%로 미흡
했다. 관리위원회는 추석이전에 소비촉진행사 및 홍
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구제역으로 단했던 소비자의
마음을 도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미래의 잠재고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우를
주제로 문학작품을 공모하는 행사를 지원하자는 의견
이 제안되어 한우의 호의적 이미지 제고 및 민족 산업
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에
10,000천원의 예산을 신선했다.

TV광고 등 적극적 소비홍보

한우자조금은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효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TV홍보를 진행하며 다양
한 TV, 라디오 PPL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예
정이다. 또한, 방학을 맞아 대학생 한우캠프를 진행해
젊은 층에 한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학생
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향후 홍보사업에도 적극 활용
할 방침이다. 한우고기의 주요 소비 세력인 주부들을
대상으로는 한우농장과 한우판매점을 견학하는 프로
그램을 만들어 우리 한우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농사를 끝내고 수고한 소에게 베푸는 잔치란 뜻의
‘만들이’란 제호로 소비자용 소식지가 7월에 창간,
배포하며 제4회 한우문화공모전을 시작, 공모전을 알
리는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우114, 트위터 활용 한우 알린다

한우자조금은 온라인 홍보에 한우 114를 적극 활용
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
위터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다양한 방면
으로 소비자들이 한우에 대한 정보와 맛집, 레시피 등
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기로 했다.

전국 한우소비활성화 행사 추진

도 소비홍보행사의 일환으로 ‘한우사랑 유람선여행’
이 시작됐으며 향후 각 도별 소비홍보행사 및 시, 군지
부 홍보행사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체 연계행
사도 추석이전에 다수 진행 예정이며 야구단연계 지원
도 7~8월 중에 활발히 이뤄진다.

교육 및 해외연수 추진

농가모임이 전면취소됐던 전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농가교육도 활성화 될 예정이다. 해외연수도 구제역 중
식선언 후 3개월 이후인 9월말 경 이후부터 구제역 발생
지역을 제외한 국가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전 사전 한우 유통감시활동

한우 유전자 검사 및 한우유통투명화 감시단도 7월부
터 12월까지 실시해 추석을 앞두고 진행해 사전 관리할
방침이다.

한우 안전성과 맛, 과학적으로 밝힌다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되는 가운데 자조금은
외국산 쇠고기와 한우의 안전성에 관한 심포지움을
지원하며 쇠고기 맛 향상을 위한 중점관리 프로세스
및 한우의 수급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우농가 위기 극복 뜨거운 의지 확인

전국 한우지도자 대회 성료...정책담당 공무원과 현안별 토론회



한우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우 정책에 관한 열띤 토론을 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지난 15~16일 충북 속리산 레이크힐스 호텔에서 2010 전국한우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한우산업 정책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남호경 위원장은 “올들어 축산농가들이 이런 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에 한우농가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지도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창범 축산정책관과 사무관들이 참석한 만큼 한우산업 정책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 비용절감 방안’을 주제로 구제역 제도 개선안내와 한우산업의 현황, 한우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 후 해당 사무관들의 발표를 실시, 조옥현 동물방역과 사무관은 개편된 방역체계와 보상체계 등을 중심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우만수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2010년 조사로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서재호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한우개량 체계 등을 발표했다.

이어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으며 농가들의 끊임없는 질문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1시간 이상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질의 및 응답 주요내용



조옥현 사무관(방역), 박홍식 사무관(정책), 서재호 사무관(개량), 우만수 사무관(조사료)이 한우농가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내 조사료 수급부족의 해결 방안은?

향후 조사료 생산량을 조사해 수급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대규모 평야지역은 농가들이 합심해 조사료 생산단지

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육기간을 27개월로 단축할 경우 도출되는 문제점의 대응책은?

사육기간 단축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다. 27개월 출하 시 문제점

을 보완하고자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다.

◎현재 한우 정액을 살 수 없으며 수태율이 30%가 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생산 물량이 부족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정액 유통과정의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수태율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조사를 한 후 대처방안을 제시하겠다.

◎가락동 공판장을 이전할 경우 추석 출하 물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음성으로 이전 후 수송비용이 상승해 경락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가락동 공판장 이전은 음성공판장의 공사완료 및 시물레이션 작동 후 시행되므로 추석이후가 될 것이므로 추석출하에는 문제가 없으며 부천공판장 등의 완충역할을 하므로 경락가격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하반기 한우유통시장 '적신호'

구제역·경기침체 여파가 전반적인 소비감소로 이어져

서울축산물공판장 김 욱 경매실장

건설이나 부동산 경기가 비슷하게 움직인다. 소비가 안 된다. 소비가 부진하니 경매가격도 좋을 수 없다. 5월보다 평균 1천500원/kg 정도가 빠졌다. 두당 60만원 정도다.

사육두수가 많은 만큼 출하두수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가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가격은 당분간 하락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 가격이 반짝 좋아지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다. 추석에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1등급 이상이 아니면 판매가 안 된다. 솔직히 2, 3등급은 군납이나 단체급식 같은 기관수요가 아니면 소화할 곳이 없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다.

소비를 활성화시켜 물꼬를 트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화돼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소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한우정육점식당 황소걸음 최 우 용 대표

전체적으로 정육점 식당 대부분이 세금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우리 매장의 경우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5%정도 되는 것 같다. 방문객이나 인터넷판매 모두 줄었다. 한우소비가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천안함이나 구제역의 여파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경기부진으로 본다.

수입쇠고기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주머니가 가벼운 소비자들을 공략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부위별로도 특정부위가 안 팔리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한우를 덜 찾고 있다.

그나마 우리 매장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인근 업소의 경우 이미 종업원을 줄이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곳도 많다.

양평축협 송 운 기 대리

불안감에 거래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수입육 물량 증가나 하반기 불투명한 전망 등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크게 눈에 띄게 물량이 줄거나 가격이 하락한 모습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거세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일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시세에 관계없이 거래하고 있다. 암소의 경우 거래가 많이 주춤한 모습이다.

송아지 경매시장은 구제역으로 밀려있던 물량들도 거의 소진인 됐고, 거래두수와 가격 모두 양호한 상황이다. 거세우 사육농가들이 경매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다.

다하누 박 승 희 본부장

한우판매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잘되는 곳은 더 잘되는 반면, 안 되는 곳은 점점 안 된다. 결국 경쟁력 갖춘 몇몇 곳만 살아남게 될 것 같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신선한 고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니까 맛있는 집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은 재고가 남으니까 품질 좋은 고기를 제공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결국 경기의 문제라고 본다. 굳이 한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외식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하누의 경우 영월은 이미 자리를 잡아 일정 수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김포의 경우는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제역의 영향을 직접받는 지역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된 지금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한때 바람을 타고 전국 곳곳에 생겨났던 한우마을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

번식농가 소득안정 정책적 뒷받침 절실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암소개량 체계 · 우량종축 확보해야



한우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번식농가들의 소득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우협회와 농어민신문은 지난 7일 개최한 한우산업 안정적 성장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는 300여명의 한우농가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석진 영남대

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번식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암소개량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우량종축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별화된 송아지를 생산하고 이 송아지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될 수 있는 ‘송아지등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현재 우려되고 있는 근친교배도 막을 수 있고 번식농가의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추석 이후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월 기준 27개월령 사육두수가 약 4만두로 집계되면서 이 물량이 3개월 후 출하정령기에 도달할 경우 물량이 몰려 가격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사업단을 통해 송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우량 암소 확보 등을 사업단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출하물량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농가들이 출하에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라며 정부도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우정액 인상보다 공급체제가 투명해야



해 한우정액의 투명한 유통공급체계 개선과 정액가격 조정, 개량사업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TF팀은 한우협회, 서재호 농식품부사무관, 가축개량사업소, 농협중앙회 등 실무자 및 대표가 참여해 현재 상황에 맞는 가격제시와 개량체계 개편을 위해 논의했다.

수차례의 회의 결과 TF팀은 1등급(10천원), 2등급(5

구제역이 끝난 6월부터 한우협회는 한우정액 가격인상 저지와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천원), 3등급(3천원)으로 3단계로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정액가격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농가의 선호도에 따른 가격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정액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선발지수식 40%와 특정형질 우수 개체 30%를 1등급으로 선발해 공급량 기준으로 1등급을 70%로 증가시키는 한편 시군별, 거래처별 공급내역을 공개하고 정액 판매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액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근친도를 줄이기 위해 씨수소에 대한 형질별 유전능력순위 및 근친혈연계수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암소능력에 맞는 정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암소검정사업을 실시해 유전능력평가에 의한 계획교배 시 정액을 우선공급하며 보증씨수소 및 후보 씨수소의 두수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우먹고! 유람선 타고! 한우사랑 유람선 여행

표어 · 디카 공모전, 시식회, 레시피 강연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 행사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7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한우사랑 유람선 여행'을 개최했다.
9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10일에는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 140여명의 소외계층과 함께 했으며 17일, 24일, 31일에는 한우사랑 '표어공모전'과 '한우요리 디카 사진공모전'을 실시해 입상자를 초청했다.



한강 유람선을 타고
한우의 다양한 요리를 만끽!!
식사하는 동안에는
익살스런 뽀에로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바로 구운 안심과
불고기, 꼬치구이 등을
시식하며
우수한 한우를 맛본다.



한우오절판,
한우애호박찜 등
새로운 레시피를
소개하는
푸드앤컬처코리아의
김수진 원장.



저녁식사동안
차분한 클래식 선율을 선사,
고급스런 분위기에서 한우를 즐긴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환호하게 되는 마술쇼가
코앞에서 펼쳐진다.



천하무적 한우! 이효리와 만나다

이효리 한우 홍보대사로 소비촉진 활동 전개



한우자조금은 14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이효리를 초청한 가운데 한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내 70여명이 넘는 언론기자들이 참석해 한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위촉식에서 남호경 위원장은 한우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효리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홍보대사를 맡아본 적이 없었다”면서 “한우를 너무 좋아해 홍보대사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 많은 분들이 한우를 먹고 힘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효리

는 평소 “한우 3인분 이상을 거뜬히 소화한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한우자조금은 그동안 탤런트 최불암, 김상경 등 주로 한국적이고 건강한 이미지의 남자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했지만 올해는 건강하고 솔직한 이미지의 이효리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효리는 앞으로 6개월간 광고캠페인과 소비촉진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소비자 곁으로 첫 발걸음 떼다!

한우 소비자용 소식지 '만들이' 창간,
「가로세로 퀴즈」 오피니언 이벤트 실시



한우자조금은 한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우 소비자용 소식지 '만들이'를 창간했다. 만들이는 연 2회 제작되어 각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에게 배포되며 한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게재해 한우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만들이 창간호 및 온/오프라인을 통해 2차 오피니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우 가로세로 퀴즈를 통해 한우의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이벤트는 한우 114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한우선물세트와 시식권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우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상상을 공모합니다

‘2010 한우문화공모전’ 진행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한우 Story- ‘2010 한우문화공모전’이 시작된다. 국민의 가슴속에 내재되어있는 ‘한우Story’를 이미지화하여 한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민족문화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개최되는 한우문화공모전은 “한우사랑에 대한 상상 공모”를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번 한우문화공모전은 사진, 광고디자인, UCC, 디지털컨텐츠, 스토리텔링 등 전년도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하며 전국민의 한우사랑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아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한우문화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을 주관하는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부장은 “한우문화공모전 수상작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우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올 해는 공모전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총 상금을 3천만원으로 확충하고, 총 101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가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대표 공모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정은 공모전 접수가 8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며, 1차 심사, 네티즌 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에 시상하며 11월 중 전시회를 열어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10 한우문화공모전 홈페이지 : www.designhanwool.co.kr / ■ 문의 : 한우공모전 사무국(02-521-7920)

2010년 6·7월 방송협찬 프로그램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

2010년 6월 30일 오전 9시 30분



탤런트 박혜숙씨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법과 며느리 자랑을 하며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즐긴다.

KBS 청춘불패

2010년 7월 2일 오후 11시 05분



한우농가를 방문하고 한우의 좋은 효능을 소개, 어르신에게 드릴 한우스테이크를 요리한다.

노령암소에 대한 효율적인 비육방법



정 준 농학박사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우연구회 간사

며칠 전 잘 아는 지인께서 한우암소인데 나이를 먹어도 맛있는 고기라며 약 2kg의 등심을 보내오셨다. 그 고기는 정말 맛이 있었나 보다. 왜냐하면 필자는 전혀 맛을 못 봤고, 출장을 다녀오니 큰 놈과 작은 놈이 저녁 늦게 귀가해서는 몽땅 구워 먹은 것이다. 아이들이 미안했는지 “아빠, 쇠고기도 맛있는 고기는 다르네요? 고기 맛이 왜 다 다른 거예요?”라며 설레발을 하던 기억이 난다. 지방산 구성에 따라 고기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산 구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배경, 품종, 성별, 월령, 비육기간, 사료종류 및 환경요인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등급제도상에서 나이가 많은 암소의 경우 성숙도에서 차별등급을 받음으로서 고급육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 산차 동안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을 일반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노산우를 이용하여 맛있는 고기, 상품성 있는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양관리를 통하여 나이가 많은 암소를 효과적으로 비육할 수 있을까? 암소의 증체와 육질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양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비육기간이 길수록 도체율, 연도, 다즙성, 근내지방도 및 풍미가 증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문전 거래를 할 경우 암소의 비육도로만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약 3~5개월의 비육기간이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번식우로서 사육되던 암소를 이용하여 공판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최소 6~8개월의 비육기간을 끌고 가야한다.

이때 정상적인 번식을 하던 암소라면 발정이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증체에 따른 경제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암소의 발정을 억제하여야 하는데 농가 단위에서는 간단한 발정억제제(Melengesterol acetate)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사육가치를 상실한 번식우의 육질을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암소의 경우 도축 후에 세포막의 지질이 빨리 산화되어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데 셀레늄과 비타민 E를 추가적으로 비육기간동안 급여하면 이러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비육기의 사료급여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에는 섭취량 증가를 위하여 비육전기 정도의 배합사료를, 후기에는 마블링사료를 활용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약 6~8개월 가량 지속할 경우 약 80~90%에 이르는 노산암소 육질 3등급 출현율을 20~40% 이하로 개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비단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비타민 C 등도 매우 유효한 것으로 알려짐)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한우번식우를 단산하지 않고 좀 더 오래 사육하면서 농가단위의 개량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암소고기로의 유통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 한우 음식점 벤치마킹 투어

광주, 호남권 중심, 1박 2일간 진행



제 3회 성공 한우 음식점 벤치마킹 투어가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광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1일차에는 매실한우, 한우촌, 송정금호축산 등의 음식점을 방문해 광양식 불고기 및 육회비빔밥 등의 지역 특수 음식을 체험하고, 한우 800여두를 사육하는 한우촌 농장을 방문해 고급육 생산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저녁에는 한우떡갈비에 대한 강연을 열어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남평할매집, 명희네식당 등을 방문해 나주곰탕 및 된장한우물회 등 저지방부위 상품을 시식하고 전남 장흥의 한우특구지역 내 정육점형 식당을 방문해 운영노하우를 전수받았다.

한우전문점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 실시



한우전문점의 서비스개선과 판매를 활성화 시키고자 실시하는 한우전문점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이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주최로 개최됐다. 지난 6월 29일 논현1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총 4강좌로 구성되어 한우전문점 대표 및 담당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제 1강연은 '한우전문점 스토리텔링 창출과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주제로 최재용대표(MD KOREA)가 한우전문점의 스토리

텔링 창출과 온라인 마케팅 성공 사례 분석에 대해 강연했다. 2강연은 김완식 대표(열린인사노무법인)가 한우전문점 경영자가 알아야 할 법정 인력관리와 노무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3강연으로 차별화된 접객서비스와 내부마케팅을 활용한 접객서비스에 대해 조영래 대표(서비스경영연구소)가 강의했다.

마지막 4강연으로 박중현 대표(전라도음식문화연구원)가 한우고기와 어울리는 절임류, 겉절이류의 상품화에 대한 설명과 레시피를 소개했다.

2010년 2차 한우판매 인증점 모집 안내

신청서 접수 기간	7. 26~8. 14(20일)
서류심사기간	8. 16~8. 25(10일)
현장심사기간	8. 26~9. 4(10일)
인증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인증 발표회	9월 4일 이후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우뉴스

● 2011년 축산박람회 9월 21~24일 확정

2011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2011)가 ‘친환경 축산, 미래의 녹색희망’을 주제로 2011년 9월 21~24일까지 열린다.

최근 축산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공동주최단체장(추진위원장 이준동)들은 회의를 갖고 박람회 장소, 주제, 대행사 선정 등에 대해 의논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우선 행사 개최 날짜를 내년 9월 21~24일까지 4일간으로 잡고, 개최 장소는 대전 무역역전시관과 컨벤션센터(KOTREX&DCC), 대구 EXCO 2곳 중 한곳을 선택하기로 했다. 주제는 총 147편의 응모작 중 ‘친환경 축산, 미래의 녹색희망’을 선정했다.

● 한우 보증씨수소 11두 새로 선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달 11일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장 김내수 충북대 교수)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소장 원유석)에서 실시한 한우 후대능력검정 결과를 토대로 한우 보증씨수소 11두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한 한우보증씨수소는 KPN708, KPN709, KPN710, KPN712, KPN717, KPN722, KPN723, KPN725, KPN726, KPN728, KPN730 등 총 11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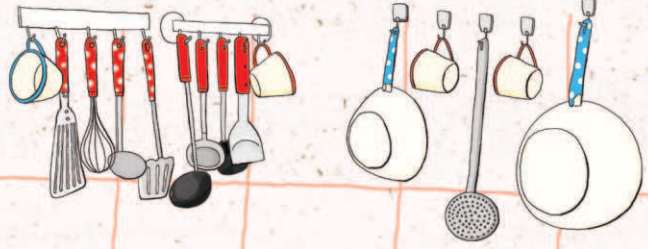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중 근내지방도 성적 기준으로는 KPN730이 가장 우수했고, 등지방두께는 KPN717이, 등심단면적은 KPN728이, 도체중은 KPN709가 가장 우수했다.

보증씨수소의 유전능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한우 농가는 자신의 사육형태, 사육목표 및 암소 유전능력 등을 고려해 한우 정액을 선택해야 한다고 농촌진흥청은 당부했다.

이날 선발된 보증씨수소의 정액은 가격조정 등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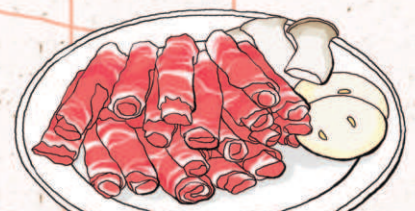
한우정책 Q&A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세부사업명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일리지 제조비	농·축협, 영농법인 등	사일리지 제조비, 장거리 운송비	• 제조비 : 보조 60%, 지방비 40% • 유통비 : 보조 50%, 자부담 50%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축산농가, 농·축협 등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비	• 축산농가 : 용자 80%, 자부담 20% • 영농법인, 농·축협 등 :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축산농가, 농·축협 등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 등	보조 30%, 자부담 70%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축산농가, 농·축협 등	• 초지조성 및 관리비 • 목책·용수·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	• 초지조성 : 보조 50%, 용자 50% • 기반시설 : 용자 80%, 자부담 20%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조사료 생산농가, 농·축협 등	사료작물용 종자 구입비	보조 30%, 자부담 70%
조사료 가공시설	축산농가, 영농법인 등	장비 및 시설 설치비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청소년 한우 맛체험

- ① 충북 청주·덕성초 | 6월 22일
- ② 전남 목포·홍일중·고 | 6월 29일
- ③ 경남 진해·진해고 | 7월 14일
- ④ 서울·화원중 | 7월 2일
- ⑤ 서울·봉림중 | 7월 7일
- ⑥ 서울·경서중 | 7월 8일





인공수정 기술교육

- ① 제주 • 6월 23~25일
- ② 경북 • 7월 5~7일
- ③ 경남 • 7월 8일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교육

- ④ 전북 • 6월 24일

한우산업정책 설명회

- ⑤ 광주 • 7월 6일

생산성 향상교육

- ⑥ 남해 • 7월 13일



8월의 할 일

일반관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축사, 운동장 및 방목장 등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축사내 온, 습도 저하 및 유해가스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송풍기를 가동시키는 등 통풍을 잘 시켜주고 깔짚을 자주 갈아 주어 축사바닥을 건조하게 유지시킨다. 갑작스런 호우에 대비하여 축사 주변, 사료포 등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 및 습해를 막는다.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산야초를 베어 먹이거나 건조를 만들고, 농산부산물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적절히 급여한다. 사료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다습하지 않도록 직사광선 및 습기를 차단하고 통풍을 잘 시키야 하며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거나 너무 높게 적재하여 변패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양관리

무더위로 사료섭취량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아침, 저녁 시원할 때에 자주 나누어 급여하고, 조섬유 함량이 높은 조사료를 과급하면 체온상승과 호흡수의 증가가 따르므로 가급적 양질 조사료를 급여하고, 농후사료의 비율을 높여 준다. 또한 고온에서는 더 많은 비 타민과 무기물이 요구되므로 사료에 섞어 먹이거나 미네랄블록 등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비육후기에는 운동을 제한하고 다툼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막아 증체 및 근내지방 축적을 촉진시킨다. 또한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에는 사료를 제한하고 뜨거운 한낮을 가능한 피하며, 상차시설을 활용하여 차에 싣고, 과적재를 피하고, 직사광선 차단 및 통풍을 잘 시키고, 안전운전 등으로 출하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인다.

방역 및 위생관리

우사 내외의 파리, 모기, 진드기 등 흡혈곤충의 구제에 힘쓰고, 우사주변의 물웅덩이나 잡초 등을 제거하여 서식처 및 발생장소를 없앤다. 소가 사료를 먹을 때에 자주 피부를 손질해 주고, 축사바닥이나 운동장 등에 날카로운 물질을 치워주어 발굽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송아지는 특히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건조하고 청결하며 통풍이 잘되는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변패된 사료를 먹거나 비를 맞으면 설사병 및 호흡기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포유 중에도 물을 먹어야 하므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의 공급에도 주의한다.

초지 및 사료포관리

담근먹이를 만들기에 적합한 옥수수의 생육상태(황숙기)는 알곡을 손톱으로 눌러서 딱딱한 느낌을 주고 약간 들어갈 때(출사기로 부터 40일 후), 성숙도에 따라 다르나 적기 파종 하려하였을 경우 대략 8월 10일~20일이다. 수확에 소요되는 날짜를 감안하여 너무 늦지 않도록 담근먹이를 만들되, 1cm간격으로 세절하고 진압과 밀봉을 철저히 한다. 8월 초~중순경 수단그라스를 2차 예취하고 추비를 준다. 옥수수 수확 후에는 후작으로 호맥, 연맥,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를 추파하되, 연맥과 유채는 빨리 파종하여 수량을 높인다.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한우기량사업소

표지이야기

발구

사전적으로는 '겉채가 표준말로 되어 있으나 발구라는 말이 더 정겹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길이 3~4m, 너비 1m내외 정도이다. 두 개의 긴나무를 나란히 엮어서 거름이나 땔감 또는 사람을 나르는데 쓰였던 운반구이다. 외발구, 쌍발구 두종류가 있는데 외발구는 눈이 많이 쌓였을 때 통나무나 쉼나무를 나르는데 사용하고, 쌍발구는 앞채와 뒷채로 이루어져 두채를 이어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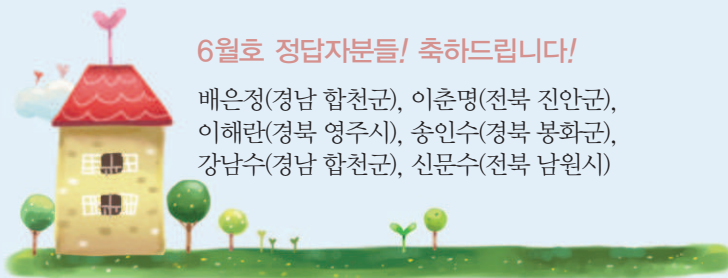


애독자 코너

한우자조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한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식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소비자용 소식지인 000을 이번달에 창간해 연 2회 발행할 예정입니다. 농사를 끝내고 수고한 소에게 베푸는 잔치란 뜻의 순 우리말인 000은 무엇일까요? 자조금 소식지 2,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6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배은정(경남 합천군), 이춘명(전북 진안군),
이해란(경북 영주시), 송인수(경북 봉화군),
강남수(경남 합천군), 신문수(전북 남원시)

전국 한우像 순례 ①6

건국대 충주캠퍼스 '황소상'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의 본관 잔디밭광장 한켠에 설치된 황소상이다. 황소가 이곳 건국대의 상징동물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이나 정적이면서도 역동적 느낌을 물씬 주는 작품이다. 황소 곁에 오른손으로 책을 펼쳐 들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과 어울어져 건국인의 기상을 황소의 우직함에 견주어 표현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황소상과 마찬가지로 박목월 시인의 "황소예찬"이 커다란 글씨체로 하단의 기단석 한면에 새겨져 있으며, 그 옆으로 誠信義의 교시 아래 학우들의 정성을 담아 우리 건국의 상징 황소상을 이곳 중원벌에 세우노니 진리 정의 자유와 함께 영원하라 너 민족건대여"라는 축문이 새겨져 있다.



이제는 소비촉진 홍보입니다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공급과잉을 대비한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강력한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대형 유통점과 연계한 한우 할인판매 행사
 - 대기업, 공공기관, 프로야구단과 함께하는 한우사랑 캠페인
 - 도별 소비촉진 행사 추진(한우사랑 유람선 여행, 휴가지 한우소비홍보 등)
- 20~30대 신규 소비층 확보와 취식유발을 위한 TV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효리 “천하무적 한우”편)
- 계절적인 요인과 소비패턴에 맞춘 TV드라마 및 생활방송에 간접광고를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